

失明豫防

NEWS LETTER · 2009 SPRING



2009년 봄호

contents

NEWS LETTER 2009 Spring

권두 에세이 / 교양과 밝은 생활	4
보건란 / 눈꺼풀 염증의 진단과 치료	7
알고 계셨나요? / 안과 상식의 허와 실	11
재단활동 / 홍콩맹인협회 방문기	14
여행정보	17
신간안내	21
감사편지	22
노인 안 검진 및 개안수술사업 소개	26
재단 사회사업현황	27
후원자 명단	31
후원 안내	32
재단소식	33

THE PREVENTION OF BLINDNESS

표지 : 박정원, 강한빛으로부터의 보호(2007 빛공해 사진 공모전 수상작)



발행처 : 121-743 서울특별시 마포구 도화2동

538(성지빌딩 B 704호)

재단법인 한국실명예방재단

발행인 : 신경환

발행일 : 2009. 3. 31

편집인 : 이하범

인쇄인 : 양순옥

THE PREVENTION OF BLINDNESS – NEWS LETTER

Korean Foundation for the Prevention of Blindness

Address : Rm. B-704, Sung Ji-Bldg., 538 Dohwa 2 Dong,
Mapo-Gu, Seoul, Korea 121-743 (Tel : 02-718-1102)

교양과 밝은 생활



이 성 교 시인, 성신여대 명예교수

모두들 세상의 말세를 말한다.

“이럴 수가 있느냐? 그게 사람이냐?”고 쓴소리를 한다. 얼마나 눈꼴이 시었으면 그런 소리를 하겠느냐고 할 때 다소 이해는 하지만 더 깊이 따지면 우리들과도 무관하지 않음을 깨닫게 된다.

근본적으로 사람은 그 본성으로 볼 때 악성이 강하다고 할까? 그래서 옛날부터 ‘성선설’ ‘성악설’을 두고 논의해 오지 않았던가. 어쨌든 사람이 세상 살 때 죄 안 짓고 살 수 없다.

인간의 역사를 따져 올라갈 때 최초의 인간 아담부터 그러했던 것이다. 그 이후 성서에서 보는 무수한 인간의 죄악상이 우리들에게 큰 교훈을 주고 있다.

오늘의 죄악 세상은 인간이 가야할 바른 길을 가지 못함에서 오는 현상이다. 더 쉽게 말하면 사람이 살아가는데 있어 지켜야 할 도리를 못 지키는데서 오는 것이다.

사실 사람은 근본적으로 악하기 때문에 죄 안질 재간이 없는 것이다. 그래서 성경에도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했다. 여기에 인간의 도리, 잘살기 위한 방법이 중요한 것이다.

여기에서 인간의 근본탐구인 철학은 그만두고라도 인간이 행해야 할 윤리도덕만은 알아야 하겠다. 이 윤리 도덕은 인간이 살아가는데 지녀야 할 기본적인 도리인 것이다.

만약 이것을 어겼을 때는 무지몽매한 금수와 다름이 없는 것이다. 가장 가까운 예로 자기를 낳아준 부모를 모른다면 그야말로 짐승만 못한 것이다. 오늘날 현실에서 눈 찌푸려질 일이 한 두 가지가 아니다.

이 윤리 도덕은 근본적으로 많이 배웠다고 잘 이행되는 것이 아니다. 많이 배운 식자층에서 잘못된 일을 사회에서 많이 본다. 높은 권좌에 앉았던 사람이, 학문적으로 많이 연구한 박사가, 정신적으로 높이 받들던 지도자가 잘못했을 때 모두 혀를 친다.

이것은 어쩌면 그 사람이 지니고 있는 교양과도 관계가 된다. 많이 배워서, 많이 체험해서 무엇을 할 때는 그것이 교양으로 나타나 그 사람에게서 향기기 풍긴다. 곧 인격은 그 행동으로 나타난다.

이러한 교양은 훈자의 생활에서 보다 여러 사람이 사는 데서 잘 나타난다. 가령 교통생활에서 보면 버스나 지하철 안에서 볼썽사나운 행동을 가끔 본다. 즉, 남을 의식하지 않고 큰 소리로 떠들기, 남 욕하기, 자리 쟁탈전 등 별의별 현상이 눈살을 찌푸리게 한다. 특히 핸드폰으로 장시간 통화하면서 자기를 내세울 때 더욱 배알이 틀리기도 한다.

우리들은 먼저 생활에서 밝게 살아야 하겠다.

내가 먼저 어두운데 빨려 들어가지 않고(죄를 짓지 않고) 내 밝은 생활이 남에게 도움을 준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지식으로나 도덕으로나 모름지기 교양인의 생활을 도모해야 한다.

우리가 교양을 익히자면 여러 곳에서 배울 수 있다. 이것은 어디까지나 그 사람의 열의에 따라 달라진다. 요사이 그런 광장이 얼마나 많이 마련되어 있는가. 가는 곳마다 체험교실이 있어 널리 광고 되고 있다. 참으로 좋은 세상이다. 이 체험교실 이외에 ‘서예’ ‘문학’ ‘미술’ 등등 눈만 돌리면 도처에 여러가지 배울 곳도 많다.

문학분야만 하더라도 ‘시’ ‘수필’ 교실이 여러 군데 마련되어 있다. 이 문학분야에서 시의 이해가 대단하다. 그래서 시인의 수가 예전에 볼 수 없을만치 해마다 늘고 있다고 하겠다. 시의 저변확대면에서는 좋은 일이다.

이런 봄을 타고 시집이 많이 나오고 있다. 문제는 그 시집의 질이 문제되고 있다. 어느면에서는 전혀 수련되지 않은 작품이 많음에 눈살이 찌푸리진다.

시를 쓰자면 충분히 수련단계를 거쳐야 한다. 서투른 지도의 결과가 그런 예를 빛을 때가 많다. 시 창작의 충동은 정말 쓰지 않고는 못 배길 그 무엇이 있을 때 쓰라는 라이너마리아 릴케의 말이 새삼 생각난다.

요사이 시를 접할 수 있는 기회가 다양한 방법으로 우리네 생활 속에 펼쳐지고 있다. 그 좋은 예가 '시 낭송회' '시화전' 등이다. 특히 서울시내 지하철 승강장에 '시가 흐르는 서울' 이란 타이틀로 많은 작품들이 걸려 있다. 그 많은 작가나 작품 중에 선별되어 전시되어 있는 만큼 인기도 대단하다.

다시 돌아가서 삶의 여러 면에서 교양을 넓히자. 그렇게 하고난 다음에 바른 행동을 하자. 교양은 마음을 살찌우는 양식이다. 이 교양을 넓힘으로 자신의 성장을 물론, 여러 사람에게 밝음을 주는 생활이 되도록 하자.

약력



이성교

- 1957년 '현대문학' 등단
- 시인. 성신여대 명예교수

〈수상〉

- 현대문학상 수상
- 월탄문학상 수상
- 한국기독교문학상 수상
- 한국문학상 수상

보 건 란



눈꺼풀 염증의 진단과 치료

정 의 상 삼성서울병원 안과 교수

최근 들어 안구건조증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건성안과 흔히 동반되어 나타나는 눈꺼풀 염증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개인적인 경험에 의하면 외래에서 안구건조증으로 진단되는 경우의 대략 반 수 이상에서 눈꺼풀 염증이 동반된 것을 보게 됩니다. 눈꺼풀 염증 이란 속눈썹이나 눈꺼풀 테두리 부위에 생기는 감염성 혹은 비감염성 염증을 아울러서 말합니다. 눈꺼풀 염증의 증상으로는 일반적인 건조증에 의해 유발될 수 있는 증상과 더불어 소양감이나 작열감이 흔히 나타나는데, 주로 자고 일어나 이른 아침에 가장 증상이 심하며 시간이 지날수록 다소 호전되는 양상을 보이게 됩니다. 실제로 이 병은 시력을 위협하는 중증의 증상을 일으키는 질환은 아니지만 일상생활에서 많은 불편을 야기하고, 꾸준한 치료 및 관리를 장기간 받아야만 치료효과가 나타나는데, 이러한 이유로 환자가 여러 의사를 찾아 다님으로써 효과적인 치료를 지속적으로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눈꺼풀 염증은 흔히 발생하는 질환이지만 정확한 진단과 함께 치료를 할 경우 환자의 불편을 많이 감소시킬 수 있습니다.

눈꺼풀은 매우 작은 부위이지만 안구와 직접 맞닿아 있는 점막부분과 피부의 경계로서 많은 모낭과 분비샘이 존재하며, 주변환경에 직접적으로 노출되어 있고 피부가 얇고, 피하층이 연약한 특징을 가지

고 있습니다.

눈꺼풀 염증은 분류법이 매우 다양하여 복잡하지만, 가장 간단하고도 임상에 도움이 되는 분류를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크게 눈꺼풀의 앞쪽에 생기는 경우와 뒤쪽에 생기는 경우로 나눌 수 있는데, 앞쪽에 생기는 경우, 주로 세균 감염에 의한 것과 지루성 체질에 의한 염증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눈꺼풀 염증을 잘 일으키는 세균의 한 종류인 포도알구균의 감염은 속눈썹이 나는 곳을 따라서 움푹 패인 궤양이 보이기도 하며, 속눈썹이 부러지거나 얇아지면서 방향이 어긋나는 경우, 눈썹이 나지 않는 눈썹탈락증이나 하얗게 변하는 백모증, 불규칙한 눈꺼풀태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세균의 부산물과 눈물막이 불안정해서 각막 및 결막에까지 변화가 발생할 수도 있는데, 각막에서는 각막 미란이나 실모양 각막염 등이 특징적으로 각막의 아랫부분에 발생할 수도 있고, 결막에는 만성 결막염의 증상을 동반한 충혈 등의 소견을 관찰 할 수 있습니다. 포도알구균에 의한 눈꺼풀 염증의 경우에는 주로 편측을 침범하는 경향이 강하고, 궤양 형성과 함께 다래끼나 콩다래끼를 자주 동반합니다.

지루성 안검염은 대부분 지루성 피부염과 관계가 있으며, 비고양성이고 가피를 동반합니다. 이는 만성 염증이 동반되는 경우로 속눈썹의 병변 없이 기름진 눈꺼풀과 눈물층에 거품이 많은 소견을 보입니다. 이렇게 눈물층 지질성분의 변화로 독성 작용이 일어나 불편감을 일으키게 되며, 이러한 눈꺼풀 염증에 감염이 동반되면서 만성 안검염으로 이행되기도 합니다.

뒤쪽에 생기는 눈꺼풀 염증은 눈꺼풀태의 뒤쪽에 존재하는 기름샘인 마이봄샘에 염증이 생긴 것으로, 대부분 이 기름샘의 배출구가 막힘으로써 염증이 일어나게 됩니다. 배출구가 심하게 막힌 경우에는 내부의 분비물이 고형화되어 눈꺼풀을 누르면 마치 치약을 짜는 것처럼 분비물이 배출되고 완전히 막히면 급성 속다래끼로 발전하기도 합니다. 눈꺼풀을 뒤집어서 밝은 빛으로 관찰하였을 경우 끊어지거나 확장되어 있는 마이봄샘을 관찰할 수 있습니다. 앞쪽 눈꺼풀 염증에 비해 눈물층이 더 불안정하지만, 각막 및 결막의 상태는 크게 차이는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여러 분류의 눈꺼풀 염증은 각각 독자적으로 영향을 미친다기 보다는 함께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증상을 악화시키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또한 증상이 급성이나 만성이나를 구분해야 하는 것도 중요한데, 급성의 경우, 주로 감염에 의한 경우가 많고, 적극적인 치료가 필요하며, 만성의 경우는 눈꺼풀의 염증은 심하지는 않으나, 오랫동안 지속될 수 있어, 보다 장기간의 치료가 필요합니다.

앞에서도 언급했듯이, 환자분들은 주로 아침에 일어날 때가 가장 불편하다고 호소하십니다. 주무실 때에는 눈꺼풀의 깜박임이 없기 때문에 세균이 증식될 가능성이 많고, 균이 분비하는 독성 물질의 양도 증가하며, 눈을 감고 있는 동안 더 농축되기 때문인 것으로 생각됩니다.

눈꺼풀 염증을 치료하는 데 있어 가장 큰 어려운 점은 장기간 치료해야 한다는 것과 환자들의 순응도가 많이 떨어진다는 것입니다. 가장 효과적이면서도 쉬우며, 경제적으로도 부담이 되지 않는 것이 눈꺼풀 위생을 좋게 하는 것입니다. 방법으로는 5분 정도 따뜻한 수건을 눈을 감은 상태에서 눈꺼풀 위에 올려 놓고 온찜질을 하며, 눈꺼풀 테 마사지를 시행하여 이미 굳어진 마이봄샘의 내용물을 배출시키는 것입니다. 이후 유이용 샴푸나 시중에 나온 눈꺼풀 전용 세척제를 이용하여 면봉이나 거즈로 눈꺼풀테 문지르기를 시행합니다. 의사에 따라 항생제 약이나 연고를 면봉에 묻혀서 사용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항생제 약을 포도알구균에 의한 눈꺼풀염증에서 사용하게 되며 취침 전에 투여하는 퀴놀론 계열의 연고가 매우 유용하게 적용될 수 있으며 스테로이드 약은 2주 정도 짧게 사용해 볼 수 있습니다. 마이봄샘 염증이 있는 경우에는 테트라싸이클린 계열의 약을 복용하도록 추천하는데, 미노싸이클린이나 독시싸이클린 등의 약제를 하루 2회 2주간 복용시킨 후 소화기계 장애나 광과민증 등의 특별한 부작용이 관찰되지 않으면, 증량하거나 용량을 유지하여 하루 2회 1~2개 월간 복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처방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치료에 적절히 반응하지 않는 경우는 환자의 순응도를 점검해 보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 순응도에 문제가 없을 경우에는 모낭종의 일종인 Demodex에 의한 가능성도 드물지만 있으므로 Tea Tree Oil을 이용해서 눈꺼풀테 문지르기를 시행해 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눈꺼풀 염증은 시력을 심각하게 떨어뜨리거나 안구에 심한 장애를 초래하는 질환은 아니지만, 쉽게 낫지 않으며 단기간의 치료로 크게 호전되지 않는 불편한 질환이 분명합니다. 또한 약처방만으로 효과를 기대하기는 어려우며, 환자분들 스스로가 꾸준하게 눈꺼풀 위생법을 지켜야 호전을 보이게 됩니다. 이 질환은 일상생활에서 많은 불편을 초래하게 되는데, 이렇게 큰 호전 없이 만성적인 경과를 보이므로 환자분들은 여러 병원을 찾아 다님으로써 지속적인 관리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이 질환은 적절한 진단과 함께 꾸준한 치료를 병행할 경우 증세의 분명한 호전을 보이게 되므로, 의사나 환자 모두가 지치지 말고 함께 격려하며 질환을 이겨나가는 태도가 필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약력

정의상

- 서울대학교병원 안과 레지던트 과정 수료
- 서울대학교병원 안과 각막전임의
- 삼성서울병원 안과 각막전임의
- 삼성서울병원 안과 임상조교수
- 성균관대학교 의과대학 안과 조교수
- 성균관대학교 의과대학 안과 부교수
- 하버드의과대학 Schepens 안연구소 Postdoctoral fellow



〈학회활동〉

- 한국외안부학회 총무
- 한국백내장굴절수술학회 보험이사
- 한국콘택트렌즈학회 이사
- 안과학회 기획이사

알고 계셨나요?



안과 상식의 허와 실

질문 미숙아망막증의 후유증으로 근시가 심한 아이의 엄마입니다. (여자아이이며, 현재 5세입니다.) 오른쪽 눈도 근시가 있지만 왼쪽 눈은 어른거리는 정도만 보인다고 합니다. 안경으로 교정도 힘든 상황이라는군요. 아주 안 보이는 것과 어른거리는 정도만 보이는 것의 차이가 궁금합니다. 한쪽 눈만으로도 일반인과 동일하게 생활할 수 있는지. 오른쪽, 왼쪽의 시력차가 큰데 좋은 쪽 눈도 더 나빠지는 않을지 걱정됩니다.

답변] 아주 안 보인다는 것은 빛을 비추더라도 감지를 못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시력의 경우 그 윗 단계는 빛을 느끼는 것이고, 그 다음 단계는 손 흔드는 정도를 감지하는 것, 손가락이 몇개 인지를 아는 것 등등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어른 거린다고 하는 것은 손 흔드는 것을 감지하는것을 의미합니다. 한쪽 눈으로도 생활은 가능하나, 단지 거리 감각과 입체 감각이 떨어진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시력 차이가 있더라도 좋은 눈이 더 나빠지지는 않습니다.

질문 전 19살 여자입니다. 어렸을 적 3m 위에서 떨어진 후, 놀를 다쳤는지 (그 당시 뇌에 이상이 없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왼쪽 눈 시신경이 성장을 멈춰버려. 원시라는 판정을 받고 (약시가 아니었을까 하는 의문이 생기네요) 취학 전 여름부터 안대를 착용하여 눈 훈련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어린 나이여서 안대훈련을 도중 포기하고 말았죠. 초등학교입학 후에는 두꺼운 돋보기 안경을 쓰고 다녔고, 초등학교 고학년때 썼다 벗었다 했구요. 안경을 썼음에도 큰 변화가 없어 중학교 2학년쯤부터는 아예 안경을 벗었습니다. 점점 시력은 떨어져 0.3까지 내려왔습니다. 양쪽의 시력이 상당히 차이가 나기 시작했어요. 고등학교 입학 후에는 렌즈를 사용하다가 2학년부터는 아무것도 사용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학

교 신체검사에서 시력이 더 떨어진 것을 알고 이러다 실명하는 게 아닌가 하는 걱정도 되었습니다. 그러다 올해 2월, 도저히 시력차를 견디기 힘들어 (두통, 어지러움) 어떤 안경점에 가서 안경을 맞추려 검사를 받는데, 이젠 렌즈, 안경 소용 없다네요. 아빠와 엄마는 조금이라도 나아질까 고굴절 안경도 사오시고 rp라는 것을 알게 된 후 인터넷에서 저시력, 실명 등을 찾다가 편안 저시력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편안 실명 등등이요. 지금 제 시력은 (좌)0.15 (우)1.2입니다. 2~3년 정도 그대로입니다. 현재 안경 렌즈 사용하지 않고요. 제 이런 눈 정확한 병명이 뭔지 알고 싶구요. 만약 제가 편안 저시력이라면 편안 실명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있는지 치료법은 뭔지 알고 싶습니다.

답변] 환자분은 어려서부터 굴절부등 약시로 생각됩니다. 굴절부등 약시란 두 눈의 굴절률이 차이가 많이 나는 경우 즉, 환자분과 같이 한 눈은 원시 한 눈은 정시의 경우 원시인 눈으로 들어오는 정보는 흐릿하기 때문에 뇌에서 인식을 하지 않으려고 하고 따라서 더 이상의 시력발달이 이루어 지지 않아서 발생하게 됩니다. 이 경우 눈에 맞는 안경을 끼고 잘보이는 눈을 가려서, 잘 보이지 않는 눈으로 계속 보게 한다면 시력이 올라 갈 수 있으나, 이러한 치료법은 초등학교 이전에 시작을 하여야 효과가 있습니다. 환자분의 경우 19세이므로 성장이 거의 끝난 상태이니 안경이나 렌즈로도 시력호전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시력이 발달하는 시기는 지났으니까요. 하지만 2~3년 동안 시력에 변화가 없다면, 대개 더 이상 나빠지지는 않습니다.

질문 7살난 딸아이가 지난해부터 눈이 가끔씩, 잠간씩 안 보인다고 호소합니다. 작년에 안과에 가보니 시력도 좋고 이상없다고 하는데. 이후 지금도 가끔씩 눈이 뿌옇게(물고기 들어 있는 어항물처럼) 보인다고 합니다. 걱정이 많이 되는데 주변에서는 혹자는 시신경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니냐 하고, 백내장 증세와 비슷한 것도 같은데 조언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 작년에 안과 검사에서 시력도 좋고 이상없다고 하였더라도, 1년이 지났으므로 다시 한번 검사를 받으실 것을 권해 드립니다. 백내장은 일반적인 안과 검사로 쉽게 진단이 되므로, 이상이 없다는 말씀을 들으셨다면 염두에 두시지 않아도 될 것 같고, 그 외에 굴절이상으

로 눈이 나빠져서 안경을 쓸 상태라면 상기 증상을 호소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정확한 굴절이상 검사가 필요할것 같습니다. 또한 시신경의 이상은 어린아이에게서는 드물지만 검사를 위해서는 눈 안을 들여다보아야 하므로 안과 검사가 필수적입니다.

질문 5살 때 화살놀이를 하다가 눈에 맞아 오른쪽 눈이 거의 안 보입니다. 초등학교 때까지는 안경을 안 써도 잘 보였는데 중학교 올라가면서 안경을 쓰기 시작했고 고등학교 때 왼쪽 눈의 시력이 많이 떨어져서 안경 없인 생활이 거의 안 될 정도였습니다. 그 후로 계속 떨어져서 31살인 지금은 조금만 책을 보아도 눈이 아프고 잘 안 보입니다. 그래서 책을 읽고 싶으면 한 20분 읽고 30분 정도 쉬었다가 또 보고 하죠. 컴퓨터 모니터도 30분 정도 보고 20분 정도 쉬고 해야 됩니다.. 계속해서 시력이 떨어져서 얼마 전부터는 눈 영양제를 먹고 있습니다. 마음적으로 위안이 될 뿐만 크게 도움이 안 되는 것 같기도 하고 제가 문의 드리고 싶은 것들은요.

1. 시력이 더 이상 안 떨어지고 지금 시력이라도 계속 유지하려면 어떻게 눈을 보호해야 하는지.
2. 계속 시력이 떨어지면 어떻게 되는지. 사시 얘기도 들은 것 같고 백내장 얘기 도 들은 것 같습니다.
3. 좌우 시력 차 때문에 군대도 면제 받았는데 장애인 등록을 할 수 있는지요.

답변] 1. 눈을 보호하려면 지금 하고 계신 방법으로 하시면 됩니다. 아울러 충분한 수면과 전신 건강도 신경쓰시고, 눈이 피로하지 않게 아껴서 쓰시기 바랍니다.

2. 양안의 시력이 차이가 나고 특히 한쪽 눈 시력이 안 좋으면 사시가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어려서 다친 오른쪽 눈은 외상으로 백내장이 생겼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검사하면 확인 할 수 있으니 안과 진료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3. 양안 시력차이로 군대 면제는 되기도 하지만 장애등급을 받을 수 있는것이 아닙니다. 단지 시력이 얼마나에 따라 장애등급이 정해지므로 안과에 가시어 검사 후 판정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재단 활동

홍콩맹인협회 방문기



한 송 이 한국실명예방재단 간사

차장님과 한성은 선생님, 그리고 나, 이렇게 구성된 우리팀은 홍콩 맹인협회(Hong Kong Society for the Blind) 방문을 위해 홍콩으로 가는 비행기에 몸을 실었다.

약 3시간 반 정도의 비행 후 우리는 홍콩 국제공항에 도착할 수 있었다. 홍콩 공항은 체리콕이라는 섬에 있기 때문에 홍콩 도심까지 우리는 약 30분 정도 공항철도를 타고 가서 홍콩역에 도착했다. 홍콩역에 내려 새삼 느낀 건 홍콩은 지하통로가 굉장히 잘 연결되어 있다는 것이다. 우리가 도착한 날은 공교롭게도 태풍이 지나가고 있었던 시기라 비가 아주 많이 왔었다. 짐가방을 끌고 우산까지 든 채 비 속을 헤매었더라면 고생을 많이 했을 텐데 잘 연결된 지하통로 덕분에 어렵지 않게 호텔에 도착할 수 있었다.

숙소에서 짐을 간단히 풀고 저녁식사도 하고 관광도 할 겸 시내로 나갔다. 많은 사람들, 자동차들, 전자들로 홍콩시내는 정말 복잡하고 정신이 없었다. 낯선 곳에서 우리의 정신을 더 쏙 빼놓은 것은 바로 도로마다 있는 횡단보도에서 나오

는 시끄러운 소리들이었다. 우리나라에서도 파란불이 켜지면 ‘건너가도 됩니다’라는 안내방송이 나오는 횡단보도가 있어서 이 시끄러운 소리가 지금은 횡단보도를 건너도 ‘된다’ ‘안된다’



라는 신호라는 것은 짐작으로 알 수 있었지만 이곳은 빨간불 일 때도 ‘딱딱딱딱’ 소리를 내고 있어 안그래도 복잡하고 번잡한 홍콩의 거리를 더욱 번잡하게 만드는데 단단히 한몫을 하고 있었다.

다음날, 우리는 홍콩맹인협회로 향했다. 홍콩맹인협회는 1956년 설립된 비영리 단체로 교육, 재활, 작업훈련, 의료서비스 등 여러 개의 센터를 통해 시각장애인들에게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는 곳이다. 그래서 이곳에는 시각장애인들 뿐만 아니라 이곳을 보고 배우려는 기관들, 대학생그룹 등의 손님들로 항상 북적인다고 한다. 센터를 돌아보면서 느낀 점은 이 센터 건물은 정말 시각장애인들을 최대한 배려하여 제작되었구나 하는 것이었다. 하지만 시각장애인을 배려하여 만들었다고 해서 일반인들이 사용하기에 불편하게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일반인들도 손쉽게 공간을 활용할 수 있게끔 실용적으로 설계되어 있었는데 특별한 점을 세 가지 정도로 요약을 해보면, 첫번째, 점자와 소리의 적절한 조화 : 센터에 들어가자마자 나는 소리는 촉지도의 위치를 알려주고 있었는데 촉지도를 통해 건물의 전체적인 윤곽을 알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각 문마다 신호 표시가 있어 이곳이 무엇을 하는 방인지 등에 대한 안내를 받을 수 있었다. 두번째는, 유도블러와 핸드레일이다. 건물의 전체에 유도블러와 핸드레일이 설치가 되어 있어 시각장애인 뿐만 아니라 일반인들도 쉽게 방향을 찾을 수 있었다. 세번째는 적절한 대비와 심볼마크 : 거의 모든 시설에 대비가 잘 되는 색상들로 표시를 하였다. 복도에 놓인 의자는 환자들에게 혼돈을 주지 않기 위해 접수대기의자와 진료대기의자의 색상이 다르다. 심지어 화장실의 세면대, 화장실의 문고리까지 대비가 잘 되어 있었다. 우리나라에서는 첫번째와 두번째의 배려는 그나마 많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생각이 든다. 하지만 세번째에 해당하는 배려는 아직도 많이 미흡한 것 같다. 그렇게 어렵거나 비용이 많이 들어가지 않고도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이기에 우리의 인식이 조금만 바뀐다면 쉽게 개선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

처음 이 홍콩 맹인 센터가 설립될 당시만 해도 이곳에서 하는 프로그램이라곤 직업센터 뿐이었다고 한다. 직업센터라고 해도 어떤 거창한 기술을 가르쳐 주는 곳이 아니라 빗 만들기, 등나무공예품 만들기 등을 할 수 있는 작은 부업장 같은 수준이었다. 하지만 점차 시간이 가면서



시각장애인들에게도 다양한 서비스의 필요가 생겨나고, 그로 인해 하나씩 하나씩 그 필요를 채워 가다보니 안과 진료, 상담 치료, 수술 등이 진행되는 LOW Vision 센터도 생기고, 1년 과정으로 진행되는 보행, 스포츠, 요리, 컴퓨터 등 일상 생활에서 독립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재활센터, 부모와 저시력아이가 도서관처럼 언제든지 이용할 수 있도록 많은 책과 비디오, 컴퓨터 등을 갖춰 놓은 부모지원센터도 생기고, 그 외

시각장애인들을 위한 생활용품을 판매하고 점자도서 등을 출판하는 정보 접근센터를 갖춘 오늘날의 홍콩맹인협회가 되었다고 한다.

이곳을 둘러보고 난 후 곰곰이 우리 재단에 대해 생각해 보았다. 비록 지금은 저시력자들의 다양한 필요를 모두 다 채워 주진 못하고 있지만 계속해서 그들의 필요가 무엇인지에 관심을 갖고 연구하고, 이렇게 더 나은 기관을 방문함으로써 배울 수 있는 점은 배우고, 지금 현재도 꾸준히 노력하고 있기에 비록 지금은 마냥 부러운 시선으로만 보고 있는 홍콩맹인협회처럼, 아니 그곳보다 더 앞서서 장애를 가진 사람들이 필요로 하는 다양한 요구들을 채워 주고, 사회와 연결해 주는 통로가 될 수 있을 거란 생각이 들었다.

홍콩맹인협회의 잘 되어진 시설이나 프로그램들에 대한 설명을 보고, 듣고, 또 체험해 보면서 2박 3일간의 짧은 기간이었지만 많은 것을 생각하게 되고 또한, 내가 해야 할 일들과 앞으로의 우리의 발전 방향에 대해서도 깊이 생각해 볼 수 있는 계기가 된 아주 뜻깊은 체험이 되었다.

마지막으로, 함께 동행해 즐거운 출장이 되게 해 주신 이 차장님과, 한성은 선생님께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싶다.

여행정보



봄의 향기를 찾아서

향기가 있는 5월, 하동으로의 초대

5월의 여행코스라면 단연 경남 하동과 섬진강변이다. 4월에는 ‘화개십리 벚꽃길’에 벚꽃이 흘날리고, 5월에는 초록의 차밭들과 하동을 두르는 섬진강 물길에 야생차의 향기가 실려온다.

서울 남부터미널에서 구례와 화개를 거쳐 하동까지 가는 고속버스를 이용하면 4시간30분 정도 소요된다. 하동 시외버스터미널에서 내려 섬진교 쪽으로 약 15분 정도 걸으면 키 큰 소나무들이 보기좋게 우거진 하동송림이 나온다. 옆으로는 섬진강이 흐르고, 강 하나를 건너서는 전남 광양땅이라고 한다. 하동송림은 지역 주민이 섬진강의 바람과 모래로 피해를 보는 것을 막기 위해 조성된 소나무숲인데, 송림 옆으로는 자전거 도로도 조성되어 있고, 강바람과 숲내음을 맑으며 휴식하기에 적격인 장소라 할 수 있다.

‘하동’ 하면 쌍계사와 차(茶)를 떠올리는 사람이 많을 테고, 어떤 이



섬진강



화개장터



쌍계사



야생차 축제

들은 청학동을 떠올릴 것이나, 좀더 조용하고 이색적인 분위기가 있는 곳을 방문해 보길 원한다면, 청학동 마을과 인접해 있는 삼성궁을 들러보자. 하동 시외버스터미널에서 삼성궁, 청학동으로 가는 버스가 있다 (1시간 소요). 산길을 걸어 올라가면 돌무더기로 이루어진 작은 문이 나타나고, 징을 세번 치고 기다리면 도인이 나와 길을 안내한다. 작은 문으로 들어가 짧은 나무 터널을 통과하면, 눈 앞에 신기한 광경이 펼쳐진다. 족히 천여개는 되어 보이는 크고 작은 돌탑들과 여기저기 서 있는 장승들, 돌들로 쌓아올려진 기단 위에 환인, 환웅, 단군을 모신 전각이 있고, 길을 따라 걸으면 청학루, 성지순례길 등을 지나 삼성궁 전체를 둘러볼 수 있다.

쌍계사는 화개면 운수리에 있다. 화개에서 쌍계사 들어가는 길은 4월 벚꽃 길보다 5월의 정조한 풀잎과 나뭇잎 냄새가 더 좋다. 연록색 잎들이 방문하는 이들을 반기는 쌍계사. 들어가는 입구에서 얇은 계곡 물이 졸졸 흐르는 소리에 귀까지도 간지럽다. 일주문과 금강문, 천왕문을 거쳐 들어가는 경내는 봄향기로 가득하고, 화려한 단청에 붉은 꽃들이 어우러진다.

쌍계사의 당당한 9층 석탑과 진감선사 대공탑비, 소박하게 한 구석에 눈을 감고 생각에 잠긴 마애불은 쌍계사의 빼놓을 수 없는 문화재이다. 대웅전까지 돌아보고 나서 시간이 있다면 금당과 국사암, 내진김에 불일폭포까지 여유있게 등산해 보는 것도 좋겠다. 1시간 반 정도 등산하면 지리산 10경 중 하나로 꼽히는 장려한 불일폭포를 만날 수 있다. 슬슬 따가워지는 5월의 햇살도 하얗게 쓸어아지는 불일폭포의 물방울들 아래에서 슬쩍 그 기세를 읽는다.

단정한 한옥의 배치가 인상적인 최참판댁을 들러본다. 정자에서는 너른 하동의 논밭이 내려다보인다. 박경리 선생의 『토지』로 유명한 악양면 평사리에 최참판댁이 있다. 청색의 기왓장과 정갈한 한옥의 배치는 꼬장꼬장하니 단정했을 옛 양반댁을 그대로 재현하고 있으며, 이곳에는 드라마 『토지』의 촬영을 위해 초기를 인 옛 평사리의 모습이 세트로 제작되어 있다. 지나가는 길에 평사리공원과 더불어 한번 방문해 볼 만하다. 〈화개장터〉라는 노래로 유명한 화개장 역시 옛장터의 모습을 소박하게 재현하고 있다. 화개 버스터미널에서 다리 하나 건너서 잠시 들러보는 것도 좋겠다.

하동의 5월은 섬진강변도 더욱 아름다운 계절이다. 섬진강변 곳곳에는 관광객들을 위해 쉬어갈 수 있는 공간들을 만들어 두었다. 손수운전을 한다면 경치 좋은 곳에 잠시 주차하고 강변 모래밭에서 쉬었다 가도 좋다. 도로변 곳곳에 이곳 별미인 재첩국집들이 있다. 미식가라면 그냥 지나칠 수 없을 것이다.

5월의 하동에서는 매년 야생차 축제가 열린다. 올해는 5월 1일(금)부터 5월 5일(화)까지 5일간 화개면 차문화센터, 쌍계사, 화개장터, 최참판댁 일원에서 열리는 이 행사는 각종 다례시연과 차에 관련된 체험 행사 등으로 다채롭게 구성된다. 이때 하동을 방문한다면 야생차축제 장에 들러 또 다른 봄의 향기를 한껏 느껴보는 것도 좋을 듯하다.

문의 : 하동군청 문화관광과 055-880-2374

장흥 제암산 철쭉제

5월에는 호남의 명산인 장흥 제암산(779m) 능선에 자생하는 아름

다운 철쭉경관이 그림처럼 펼쳐진다. 제암산 철쭉은 정남진의 따뜻한 훈풍에 힘입어 전국에서 가장 먼저 피어 올라 5월의 제암산을 붉게 물들인다. 이곳에서 열리는 제암산 철쭉제는 지난 1991년 5월 5일, 제암산악회와



제암산 철쭉제



제암산 휴양림 콘도

장흥문화동호인회가 공동으로 제암산 정상 헬기장에서 제1회 제암철쭉제를 개최한 이래 올해로 19회째를 맞고 있다.

정남진 물축제, 천관산 억새제와 더불어 장흥군 3대 이벤트 행사

로 정착되었다. 특히 이번 축제는 관광객이 참여하는 소망리본달기, 꽃씨풍선 날리기, 철쭉제례, 철쭉선아 및 철쭉어린이 선발대회 등 다채로운 행사가 펼쳐진다. 장흥 제암산의 철쭉 주간은 오는 5월 1일부터 15일까지이며, 철쭉제는 5월 2~3일에 열린다. 전야제는 예양강 둔치에서, 철쭉제는 제암산 철쭉제단에서 펼쳐진다.

제암산(帝岩山) 정상은 임금 제(帝)자 모양의 3층 형태로 높이 30m 정도되는 바위가 우뚝 솟아 있다. 수십명이 한자리에 앉을 수 있는 이 정상의 바위를 향하여 주변의 여러 바위와 주변의 봉우리들이 임금에게 공손히 절을 하고 있는 형상이어서 임금바위(제암)라 부르며 이 산을 제암산이라 한다고 전해진다. 정상에 서면 호남의 5대 명산중 하나인 천관산, '호남의 금강'으로 불리는 월출산, 광주의 진산인 무등산과 팔영산이 시야에 들어온다.

사자산(666m)은 곰재를 사이에 두고 제암산과 마주보고 있으며, 동서로 400m의 능선이 길게 뻗어 있다. 산이름은 거대한 사자가 누워서 고개를 든 채 도약을 위해 일어서려는 형상을 하고 있는 데서 유래하였으며, 일본의 후지산을 닮았다 하여 장흥의 후지산으로도 불린다.

제암산자연휴양림은 96년에 개장하여 국민 모두가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입장료를 받지 않으며, 매년 편의시설을 보완하여 주차공간과 야영장, 통나무집 6동과 현대식 콘도 11실의 객실을 갖추고 있다.

문의 : 장흥군 문화관광과 061-860-022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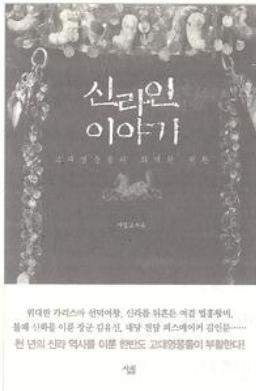
제암산악회 061-863-2258

신간 소개

신라인 이야기



· 저자 : 서영교
· 출판사 : 살림
· 정가 : 12,000원



천 년 왕조를 이룩한 신라의 영웅들

신라는 우리 역사상 유일하게 여왕이 존재했던 국가이자 거서간, 이사금, 마립간, 차치옹의 왕호를 사용하는 등 독특한 문화를 지니며 천 년 동안이나 유지된 거대한 왕조를 이룬 나라였다. 우리나라의 수많은 왕조 중에서 특히 더 친란하고 화려한 문화와 역사를 자랑하는 신라는 그 자체로 거부할 수 없는 매력을 내뿜는다. 〈주몽〉 〈태왕사신기〉 〈태조 왕건〉 등 사극 열풍을 일으켰던 고구려 사극에 이어 〈선덕여왕〉 같은 신라시대를 배경

으로 한 사극이 만들어지는 이유도 신라만이 갖고 있는 독특한 미학 때문이다.

고대사와 전쟁사를 전공한 저자는 늘 같은 얘기를 반복하는 고대사보다 의미 있는 작업을 해보기 위해 고대 전쟁을 연구하기 시작했다. 이 책은 그러한 연구의 확장 과정에서 탄생했다. 신라의 천 년 역사를 이룩한 왕과 왕족, 그리고 그들을 둘러싼 읍모와 분쟁을 철저한 고증을 거친 사료와 작가적 상상력을 통해 스페셜클한 드라마 형식으로 풀어낸 것이다. 단순히 영웅의 무용담을 뛰어넘어 읍모와 시련을 이겨 내는 과정에서 영웅들의 내면의 목소리를 묘사한 부분에서는 그들의 인간적인 고뇌와 갈등도 엿볼 수 있다.

말실수로 인해 비극적인 최후를 맞이한 우로와 어이없는 지아비의 죽음을 대신하여 복수를 위해, 결국 그 복수에 성공했지만 역시나 비극적인 최후를 맞이한 우로의 아내 이야기는 가장 기억에 남는 이야기가 될 것이다.

같은 핏줄임에도 서로 죽이고 죽여야만 했던 피의 역사, 나라를 위해 한 몸 바친 이들의 이야기, 그리고 여러 사료들을 통해 모아진 영웅들의 진짜 이야기 까지 많은 이야기가 담겨 있다.

감사편지

김○○(60여) 당뇨망막증, 백내장으로 수술을 받고
직접 편지를 보내 주었습니다.



영치없이 두 번씩이나 도움을 받아 수술을 받은 김○○입니다. 직접 찾아뵙고 감사의 인사를 드리고 싶으나 찾아뵙는 것조차 누가 될까봐 망설이다 이렇게 감사의 편지를 보내게 됐습니다. 지금의 저로서는 정말 감사하고 또 감사하다는 말밖에에는 할 수가 없네요...

전 17년 전 이혼 뒤 근근이 살아왔습니다. 월세 방에 거주하여 가진 것 없이 살았으나 마음만은 딸과 함께라면 무엇이든 할 수 있다는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10년 전만 해도 식당일이나, 남의 집 살림을 도와 주며 돈을 벌어 우리 두 식구가 살아가기엔 큰 부족함이 없었습니다. 남들은 수백, 수천을 가지고 있어도 모자른다고 말하지만 저는 그 달그달 내야하는 월세와 최소한의 생활비가 부족하지 않으면 행복하다는 생각으로 살았습니다. 그렇게 생활하던 어느 날 딸아이가 행방불명이 되고 없어진 딸을 찾아 집으로 데려오는 생활이 반복되기 시작했습니다. 제 딸아이는 지금 32살로 정신장애를 겪고 있습니다. 학교를 다닐 때까지만 해도 또래의 평범한 아이들과 크게 다름이 없었습니다. 그런 제 딸아이가 갑자기 정신장애를 겪게 되면서 저의 생활과 건강 또한 나날이 나빠지기 시작했습니다.

당시 전 당뇨가 있다는 사실조차 모르고 생활하다가 행방불명된 딸아이를 찾아 길거리를 해매다 쓰러지고 난 뒤에야 당뇨병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당뇨수치가 500에 이를 정도로 저의 몸 상태는 매우 안 좋았습니다. 그러나 제 몸을 돌볼 여유는 없었습니다. 딸아이는 사람들을 기피하고, 어두운 곳으로 숨기를 반복하여 사회와 멀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다행히 지역사회 복

지기관의 도움을 받아 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고 많이 좋아지긴 하였으나 지금도 입원과 퇴원을 반복하며 치료를 받아야하는 상황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여기저기 데리고 다니며 치료도 받게 하고, 사회 적응훈련을 시키면 나아질 수 있다고 하지만 지금 저의 경제적인 형편과, 95kg에 달하는 팔아이를 제가 데리고 다니기엔 저의 건강이 너무나 나빠져 있습니다. 당뇨로 인한 합병증으로 밥그릇에 밥이 담겨 있는지 아닌지 손으로 만져봐야 알 수 있을 정도의 시력만이 남아 있습니다. 그나마 많은 분들의 도움으로 긴급히 수술을 받아 생명을 피할 수 있었습니다. 당시 의사선생님 말씀으로는 수술을 받지 않을 경우 빛도 보지 못하게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수술비가 없어 어찌할 바를 몰라 힘들어하던 중 병원에 있는 재단 포스터를 보고 한 가닥 희망을 가지고 생명예방재단의 도움을 요청하게 되었고, 따뜻한 분들의 도움으로 무사히 수술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전 지금 여관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월세 방 보증금을 병원비로 다 쓰고, 보증금이 필요 없는 여관방으로 옮겨 근 1년 7개월 가량 살고 있습니다. 다행히 다음 달부터는 등촌동에 있는 임대아파트에 들어갈 수 있게 되어 그나마 큰 시름을 덜었습니다. 보증금이 없어서 입주를 미루다가 정부 생계지원금 중 일부를 조금씩 모아서 드디어 입주를 하게 되었습니다. 너무나 기쁩니다. 여러분들의 도움을 못 받았다면 이마저도 누릴 수 없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제 제가 소망하는 것은 딱 한 가지뿐입니다. 저 없이는 한시라도 살 수 없는 제 팔을 위해서라도 더 이상 눈이 나빠지지 않고, 팔과 지금처럼만 살았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많은 분들의 도움으로 수술을 받게 되었으니 제가 건강하게 살아가는 모습을 보여드리는 것이 가장 큰 보답이라고 생각됩니다.

두서없이 쓴 글이라 민망합니다만... 제 고마운 마음을 표현할 방법이 이것밖에 없네요.

힘들게 사는 세상이지만 여러분들과 같은 사람들이 있어 조금은 웃으며 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모두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편지

송○○(59남) 맥락막 흙생증으로 수술을 받고
직접 편지를 보내주었습니다.



먼저 실명예방재단과 보건복지가족부 관계자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얼마 전까지만 해도 사랑스런 아내와 건강하고 썩씩한 아들 둘을 둔 건강한 아빠이자 한 가정의 가장이었습니다. 몇번에 걸친 사업 실패로 인해 아내와 저는 파산하였지만 배송 일을 하면서 경제적으로는 조금 어려웠으나 성실하고 긍정적인 마음으로 행복한 가정을 꾸려나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추석이 지나 갑자기 눈이 침침하고 잘 보이지 않는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크게 불편하지 않아 내일이면 괜찮겠지 하며 하루 이를 시간을 보내고, 열흘 정도가 지나서도 암이 잘 안 보이자 가까운 안과 의원을 찾아가게 되었습니다. 눈에 뭐가 들어가 염증이 생긴 줄로만 알았습니다. 찾아간 동네 의원에서는 망막에 이상이 있다는 소견을 들었고, 큰 병원에 가서 빨리 수술을 받으라고 하여 집 근처의 대학병원을 찾게 되었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병의 심각성을 전혀 느끼지 못했습니다. 백내장 같이 수술하면 나아지는 병이거니 생각했습니다. 찾아간 대학병원에서는 눈에 종양이 보인다며, 흔치 않은 병이기에 다른 병원의 암암 전문 교수님께 찾아가라는 말을 듣게 되었습니다. 순간 하늘이 무너지는 줄 알았습니다. ‘알라니.... 한 달 전까지만 해도 멀쩡하던 내가 암이라니....’ 신께 많이 원망하기도 하였습니다. 나보다 도 아이들과 아내, 그리고 나이 드신 부모님을 어떻게 해야 하나 정말 막막하기만 했습니다. 암을 보고 운전을 하는 일이었기 때문에 진단을 받고 결국 일을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병원에서는 맥락막 흙색증이라는 진단이 내려졌습니다. 처음 듣는 생소한 병명이었습니다. 여러 정보를 찾아보니 희귀질환으로 우리나라에 흔치 않은 암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또한 암을 볼 수 없

어진다는 말보다 떼나 간으로 전이가 의심이 되며 전이 검사를 받아야한다는 소견에 정말 내 삶이 여기서 끝인가라는 생각으로 며칠 밤낮을 힘들게 보냈습니다. 그런데 불행 중 다행이도 전이가 안 되었고 최선을 다해서 수술을 해보자는 선생님의 말을 듣고 저에게 희망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여러 수술방법 중 방사선치료가 현재로서 저에게 가장 적합한 치료법이라는 판단 하에 수술을 받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일도 뜻하는 상황에서 경제적인 문제에 또다시 힘들 수밖에 없었습니다. 수술 받기 전 검사비만도 큰 돈이 들었는데 1회 수술비용 만으로도 엄청난 비용이 든다는 사실을 알고 또 한 번 좌절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 나가야할지 앞이 깜깜할 뿐이었습니다.

긴급 의료비라도 도움을 받을 수 없을까 싶어서 무작정 시청을 찾아갔습니다. 시청 복지과에서는 수술비의 일부만을 도와줄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그것을 제외하고도 수백 만원이 부족하였습니다. 저희 어려운 사정을 듣고 시청 복지과 선생님이 실명예방재단에 대해 알려주셨습니다. 급히 실명예방재단에 도움을 청하게 되었고, 저의 사정을 알게 된 재단 관계자 분들께서는 다행히 도움을 받을 수 있다는 소식을 알려 주었습니다.

사람에게 불행만 다가오는 것은 아니구나... 이제 살 방법이 생겼구나... 너무나 기뻤습니다. 아내와 저는 두 달 동안의 끔찍한 악몽 속에서 이제야 살 수 있다는 희망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11월 말 경, 저는 여러분들의 도움을 받아서 무사히 수술을 받았고, 이전 빨리 회복해서 도움을 주신 분들에게, 그리고 저처럼 어려움에 처해 있는 분들에게 이 고마움과 감사함을 나누고 싶습니다.

다시 한 번,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꼭 회복하여 건강한 모습으로 도움 주신 분들에게 보답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인 안 검진 및 개안수술사업 소개



노인 안 검진 및 개안수술사업

노인들의 실명예방 및 시력향상을 위해 2003년부터 보건복지가족부와 공동으로 무의총 지역 및 의료접근도가 낮은 지역의 저소득 노인들에게 안정밀검진을 실시하고 눈 수술이 필요한 분들에게는 개안수술비지원 등의 사업을 다음과 같이 실시해 오고 있다.

1. 어르신 무료 안 검진

안과 병·의원의 접근도가 낮은 지역 노인들을 대상으로 연간 60회 이상 10,000여명에게 안과 장비를 갖춘 검진팀이 직접 현장을 방문하여 눈 정밀검사를 실시하여 눈 질환을 조기발견하고 치료를 도움으로써 시력증진 및 실명예방에 힘쓰고 있다.

검진신청은 시·군·구에서 시도를 통해 보건복지가족부로 신청을 하면 검진을 받을 수 있다.

2. 어르신 개안수술비 지원 (저소득층)

수술로 시력회복이 가능한 눈 질환이 있는 60세 이상의 저소득층 어르신들의 백내장, 당뇨망막증, 녹내장 등의 안과 질환의 수술비(본인부담금)를 지원함으로써 함께 보는 밝은 세상을 만들어 가고 있다.

구비서류는 수급자증명서(저소득층은 읍·면·동장 추천서 및 과세증명서), 주민등록증 사본, 수술 소견서(진단서)가 필요하며 관할 읍·면·동사무소에 접수하면 된다. (단, 수술 후 지원 불가하며, 수술 전 서류가 접수되어 지원 결정을 통보받은 자에 한하여 가능함.)

3. 보건교육 및 돌보기 보급

어르신들의 눈 건강을 위해 수술 후 눈 관리법과 안과 질환상담을 실시하고, 돌보기를 보급하여 일상생활에 도움을 주고 있다.

재단사회사업현황-수술자 명단

(2008년 12월 ~ 2009년 2월까지)

강원도	김점옥	63	여	이영숙	69	여	박삼연	84
강수복	김정순	83	여	이옥분	83	여	박선립	78
기영숙	김태옥	69	여	이옥순	65	여	박연옥	73
김경희	김현중	6	남	이인순	81	여	송청자	73
김권태	나오덕	63	여	이점석	87	여	신두녀	76
김동선	문숙자	66	여	이정우	46	남	엄순자	66
김선희	문정이	68	여	이정주	74	여	여명수	81
김옥기	박상태	76	남	이창석	53	남	여미업	80
김일수	박숙원	79	여	이체린	8	여	오모순	53
김재연	박숙자	83	여	이춘원	77	여	오임지	74
김정만	박승균	52	남	임서영	1	여	유기악	87
남기수	박웅자	67	여	임옥희	67	여	윤점순	71
박삼병	박유빈	7	여	임효영	1	여	이가태	74
박상훈	박은주	80	여	장계희	75	여	이금업	77
박윤규	박장숙	72	남	전승희	11	여	이남식	82
송상준	박정옥	79	여	전지훈	10	남	이덕점	73
전유식	박현순	55	여	정수복	72	여	이청일	72
정병호	서순석	79	남	정순이	81	여	이춘	70
조성웅	손정수	61	남	정애자	74	여	이춘식	81
조옥희	송다윤	9	여	정재수	89	남	이춘형	76
주영종	송성훈	40	남	정춘영	75	여	임봉례	78
지 성	송종식	62	남	정치국	74	남	임순달	88
함봉하	신금식	71	남	조영생	49	남	정막선	77
홍나경	신영희	72	여	조용연	73	여	정봉애	67
	안평옥	75	여	주순기	70	남	정상민	25
경기도	안영환	78	남	진해섭	73	여	정순금	78
강경옥	엄재춘	71	남	채복실	67	남	정운의	78
강미경	엄광식	80	남	최구영	67	여	정정임	76
강미숙	오지수	7	여	최동인	78	남	정형순	76
강세경	오청용	74	남	최순옥	79	여	조막여	77
고금례	유밀순	70	여	최종길	83	여	조연화	68
곽재우	유봉순	84	여	편무수	73	남	주숙남	85
권석찬	유숙자	68	여	한수민	68	여	최금조	77
권영희	유연우	71	남	한연옥	6	남	최술선	74
권차순	유용중	73	남	한용석	69	여	허갑도	72
김귀례	유일례	75	여	한창희	68	남	허술	77
김구성	윤근례	73	여	홍란옥	81	여	홍다인	6
김달숙	윤은순	69	여	황영일	70	남	홍두엽	74
김동국	윤정숙	80	여					
김명자	윤정래	87	남					
김민수	윤철수	73	남					
김세영	이금자	68	남					
김순금	이기태	72	여					
김순예	이나연	6	남					
김순옥	이복원	74	여					
김양호	이상윤	84	남					
김영희	이수학	65	남					
김옥진	이순애	70	여					
김재근	이순임	81	여					
경북	경남			경북			경남	
김금순	김고자	68	여	김금순	82	여	김금순	82
김두리	김귀영	76	남	김두리	73	여	김두리	73
김말분	김덕자	70	여	김말분	74	여	김말분	74
김순기	김봉녀	71	여	김순기	72	남	김순기	72
김순옥	김윤생	87	여	김순옥	84	여	김순옥	84
김순임	김정자	74	여	김순임	71	여	김순임	71
김영순	김종길	61	여	김영순	70	여	김영순	70
김오임	박매자	64	여	김오임	56	여	김오임	56
김옹선				김옹선	80	여	김옹선	80

◆ 본 재단에 기증된 후원금과 국고지원으로 749명의 환자가 밝은 세상을 보게 되었습니다.

재단사회사업현황-수술자 명단

(2008년 12월 ~ 2009년 2월까지)

김옥순	84	여	김일용	81	남	강지춘	68	여	손승영	6	여														
김월화	76	여	김정업	79	여	강지희	8	여	송유익	77	여														
김일권	74	남	김지비	71	여	강체은	6	여	송정숙	68	여														
김임순	80	여	김학순	78	여	김분룡	70	여	신순자	65	여														
김춘화	88	여	노금자	86	여	박해금	68	여	오복순	65	여														
김하정	11	여	노선례	62	남	서보영	49	남	위현주	5	여														
박금리	77	여	문재풍	67	남	손문철	49	여	윤순찬	69	여														
박하영	5	여	박순래	81	여	신정수	78	여	이강윤	54	여														
박환자	71	여	박윤섭	65	남	안상식	70	여	이계순	89	여														
반영연	47	남	박판금	83	여	윤금태	77	여	이광호	52	여														
배보이	90	여	배수이	75	여	윤준자	70	여	이상렬	70	여														
배진순	70	여	백암엽	69	여	이상달	68	여	이선아	69	여														
서윤자	65	여	서옥례	77	여	이순진	77	여	이성용	61	여														
송우분	72	여	송기원	72	남	이종오	52	여	이이조	74	여														
안병복	52	남	신영주	74	남	이철규	87	여	이정자	76	여														
오윤금	85	여	양성기	74	남	최순순	87	여	이창민	36	여														
윤기석	53	남	오영순	84	여	허분돌	76	여	임종대	80	여														
이넓이	71	여	유남식	56	남	대전시																			
이복란	68	여	유영록	56	남	김순자	86	여	부산시																
이봉여	92	여	윤묘덕	76	여	남광희	78	여	김순분	42	여	서울시													
이선옥	80	여	윤순열	74	남	문정순	61	여	강영수	75	여	강기례	51	여	경기										
이소연	66	여	윤응석	58	남	손춘자	64	여	강영근	67	여	강복순	78	여	강복순	78	여	강서린	4	여					
이수희	81	여	이병만	54	남	장영란	51	여	고창운	72	여	강유경	73	여	강유경	73	여	강유경	73	여					
이옥순	39	여	이영범	81	남	조광원	51	여	곽옥선	73	여	강정예	50	여	강정예	50	여	강정예	50	여					
이종대	75	남	이영순	63	여	이춘강	67	여	곽일순	84	여	강창호	45	여	강창호	45	여	강창호	45	여					
이현수	60	남	정세체	77	남	장선영	36	여	김득성	84	여	강혜성	7	여	강혜성	7	여	강혜성	7	여					
임연화	79	여	정순옥	77	남	정순옥	79	여	김명월	70	여	고수남	78	여	고수남	78	여	고수남	78	여					
장순조	86	여	정제철	68	남	정제철	68	여	김복희	73	여	공선영	9	여	공선영	9	여	권인숙	69	여					
전병화	68	여	조광덕	83	여	주연님	76	여	김성희	73	여	길화자	68	여	길화자	68	여	김남규	71	여					
전점분	77	여	정귀례	78	여	주장례	87	여	김수자	62	여	김남규	71	여	김남규	71	여	김달임	81	여					
조명순	81	여	정병순	59	남	최만래	79	여	김순항	72	여	김두연	72	여	김두연	72	여	김봉숙	68	여					
최복남	80	여	정복순	62	여	최양업	68	여	김정언	3	여	김상국	73	여	김상국	73	여	김상숙	86	여					
최월금	65	여	정세체	77	남	최연순	71	여	김정자	68	여	김상숙	86	여	김상숙	86	여	김상숙	86	여					
한정대	42	남	정정우	77	남	최춘남	67	여	류형자	71	여	김손남	52	여	김손남	52	여	김손남	52	여					
광주시												대전시													
강경님	74	여	조광덕	83	여	주연님	76	여	김성희	73	여	부산시	51	여	부산시	51	여	부산시	51	여					
강금례	70	여	주연님	76	여	주장례	87	여	김수자	62	여	강기례	51	여	강기례	51	여	강기례	51	여					
강연순	69	여	최만래	79	여	최양업	68	여	김순항	72	여	강복순	78	여	강복순	78	여	강복순	78	여					
고복순	84	여	최연순	71	여	최연순	71	여	김정언	3	여	강서린	4	여	강서린	4	여	강서린	4	여					
고의순	72	여	최양업	68	여	최연순	71	여	김정자	68	여	강유경	73	여	강유경	73	여	강유경	73	여					
김금례	72	여	최연순	71	여	최춘남	67	여	류형자	71	여	고창운	72	여	고창운	72	여	고창운	72	여					
김금례	88	여	최춘남	67	여	추정업	53	여	문망랑	86	여	김명월	70	여	김명월	70	여	김명월	70	여					
김동임	80	여	한성복	86	남	한일석	77	남	박근하	78	여	김복희	73	여	김복희	73	여	김복희	73	여					
김봉섭	53	남	한일석	77	남	홍순금	83	여	배정심	75	여	김성희	73	여	김성희	73	여	김성희	73	여					
김삼순	75	여	홍순금	83	여	대구시	75	여	백옥임	79	여	김수자	62	여	김수자	62	여	김수자	62	여					
김선례	80	여							변증자	75	여														
김성업	70	남																							
김영임	66	여																							

◆ 본 재단에 기증된 후원금과 국고지원으로 749명의 환자가 밝은 세상을 보게 되었습니다.

재단 사회사업현황-수술자 명단

(2008년 12월 ~ 2009년 2월까지)

김수경	73	남	양희순	75	여	정창자	64	여	정수남	87	여
김수암	82	여	염순자	69	여	조광식	72	남	조정옥	68	여
김순례	65	여	오성주	46	남	차영재	68	남	조현식	70	여
김순자	74	여	오홍일	66	남	차세선	71	남	최사순	70	여
김애실	63	여	원선본	73	여	차지환	78	남	한경자	67	여
김연수	68	여	원호선	54	남	천백수	52	남	홍혜숙	54	여
김용기	66	여	유갑종	77	남	최갑순	85	남			
김은업	93	남	유경순	72	여	최경복	47	남			
김재현	52	남	유영순	84	여	최공열	52	남			
김정미	55	여	유윤수	66	여	최길웅	77	남			
김정태	72	여	유전남	67	여	최미남	62	남			
김중임	69	남	유환숙	69	남	최보래	89	남			
김지원	6	여	윤덕병	78	남	최삼부	82	남			
김창선	57	남	윤봉예	75	여	최치순	80	남			
김철준	71	남	이근식	81	남	추병순	74	남			
김혜민	3	남	이난영	74	여	한재준	4	남			
김화자	68	남	이동문	46	남	함도식	60	남			
김희자	4	여	이루리	6	여	함진래	83	남			
남복임	79	여	이명순	82	여	허순분	70	남			
남애순	57	여	이병선	34	여	허조강	75	남			
노봉식	84	여	이상각	70	남	홍성희	61	남			
노영래	56	여	이선영	41	여	홍옥례	80	남			
마경섭	58	여	이성례	93	여	황병석	43	남			
박강순	46	여	이성세	73	남	황산녀	65	남			
박인덕	69	여	이숙재	73	여	황순희	75	여			
박만엽	67	여	이순자	66	여	인천시					
박매자	67	여	이의진	78	남	강숙자	77	여			
박맹옥	73	여	이밀영	70	남	김성일	43	남			
박명순	71	여	이종철	49	남	김순애	32	여			
박신자	68	여	이철수	50	남	김정목	74	남			
박영희	58	여	이정자	65	남	김태성	51	남			
박용순	82	여	이태준	44	남	김형중	65	남			
박인숙	76	여	이해청	67	남	남기숙	48	남			
박준희	43	여	이효순	46	남	박석전	62	남			
박진국	57	여	이희만	75	남	백용기	68	남			
박현임	71	여	임경자	74	남	변상호	50	남			
방리나	12	여	임봉순	73	남	변영구	51	남			
배교순	73	여	임성만	57	남	손말분	55	남			
배상욱	48	여	임영규	50	남	송애순	38	남			
백순희	82	여	임용국	58	남	유기원	59	남			
서정례	74	여	장성모	88	여	이계순	80	남			
설묘순	69	여	장수조	75	남	이규홍	73	남			
손순이	78	여	장순남	69	여	이상민	33	남			
손재훈	73	여	전경복	67	여	이상직	74	남			
송영수	82	여	전영자	67	여	이수갑	78	남			
신영호	72	여	정연순	74	여	이옥수	78	남			
신옥자	79	여	정영자	68	여	이현우	73	남			
신현례	79	여	정정희	63	여	임복대	82	남			
양애원	73	여	정주림	54	남						

◆ 본 재단에 기증된 후원금과 국고지원으로 749명의 환자가 밝은 세상을 보게 되었습니다.

재단사회사업현황-수술자 명단

(2008년 12월 ~ 2009년 2월까지)

박웅임	77	여	진점순	79	여	김봉이	84	여	백연애	73	여
박종례	90	여	채금례	77	여	김성후	75	여	서승순	77	여
박태운	79	남	채매순	73	여	김순보	75	여	성영준	67	여
박희님	79	여	최기원	65	남	박승훈	5	여	신관분	79	여
백경연	87	여	최병임	64	여	박진자	68	여	신순자	67	여
서옥순	72	여	최순례	74	여	배경리	4	여	양금자	68	여
선갑순	86	여	최연금	68	여	송기생	72	여	양송아	75	여
선계식	80	남	최옥남	71	여	양예지	5	여	오순진	67	여
설효순	78	여	최종식	72	남	이경임	75	여	유재영	73	여
손윤심	76	여	탁금례	79	여	이귀임	13	여	윤삼섭	70	여
신삼례	67	여	한인수	85	남	이정심	75	여	이귀남	81	여
신양순	77	여	한호범	80	남	임기년	90	여	이동식	78	여
안금례	72	여	홍복순	80	여	장인수	3	여	이정분	87	여
안조자	73	여				정애옥	78	여	이정선	80	여
양동심	80	여				최재용	72	여	이정열	71	여
염일섭	68	남	전북			현정자	68	여	이진재	81	여
오양임	78	여	강복례	78	여				이청재	67	여
우복인	75	여	강순임	72	여	충남			이홍상	74	여
유길순	74	여	고태산	6	남	강노월	75	여	임과순	65	여
유완중	78	남	김동률	75	여	강영식	81	여	임선주	77	여
유일권	78	남	김순자	71	여	강화순	75	여	임영순	66	여
이금순	68	여	김용례	74	여	고영근	78	여	전향화	79	여
이범근	78	남	노상직	81	여	곽정숙	75	여	정복모	72	여
이순금	69	여	노순남	80	여	김갑점	75	여	정춘혜	67	여
이순덕	77	여	문귀순	81	여	김교성	75	여	조복순	72	여
이순임	76	여	서덕선	87	여	김기례	74	여	조순	99	여
이야기	91	여	오심례	75	여	김동순	81	여	조옥진	71	여
이안순	70	여	원봉순	72	여	김분이	70	여	조옥화	64	여
이월향	75	여	유연심	77	여	김선임	53	여	주청분	68	여
이정자	76	여	유재근	90	여	김애심	68	여	최춘길	75	여
이정자	82	여	이금순	73	여	김옥순	75	여	최희동	76	여
임금순	68	여	이덕순	82	여	김옥임	69	여	현문석	68	여
전다례	76	여	이석범	61	남	김옥환	75	여	허남채	63	여
전양례	75	여	이영애	74	여	김용남	72	여	홍순전	76	여
전옥엽	72	여	이정임	72	여	김용호	60	여	총월	78	여
전판례	66	여	이화자	71	여	김이슬	4	여	황순금	71	여
정귀래	81	여	정경수	49	여	김정애	73	여			
정귀임	79	여	조인식	79	여	김주경	51	여	충북		
정세환	76	남	채홍석	57	여	김창순	77	여	김민성	10	여
정순금	70	여	최인순	74	여	김춘자	67	여	김아지	87	여
정준환	83	남	한경희	83	여	김희자	74	여	김옥근	80	여
정태연	74	남	한상희	78	여	노희안	72	여	김정열	77	여
정휴원	80	남	한향순	70	여	문옥임	67	여	박석만	76	여
조동순	76	여	황만옥	75	여	민영식	77				
조점순	87	여				부남업	71				
조정숙	72	여	제주도			박만천	71				
주복순	82	여	강성미	73	여	박상숙	72				
진민혁	4	남	고을생	84	여	박장희	72				
진병님	74	여	김대연	82	남	박종희	81				
			김명환	58	남						

◆ 본 재단에 기증된 후원금과 국고지원으로 749명의 환자가 밝은 세상을 보게 되었습니다.

후원해 주신 분들의

관심과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2008년 12월 ~ 2009년 2월)

강릉한빛안과(모금함)	41,000	박지영	60,000
강혜숙	30,000	서진활안과	22,830
고효자	20,000	성근용	700,000
기창원	60,000	성모안과의원	2,000,000
길병원(모금함)	70,630	세광의료재단	800,000
김경원	20,000	세브란스(모금함)	66,740
김대호안과	100,000	신안과	15,290
김범준	500,000	엠앤소프트개인	272,000
김성희	300,000	오미경	60,000
김순미	90,000	유승희	30,000
김승현	286,800	윤길강	100,000
김애경	60,000	이윤호	100,000
김연옥	149,500	이정행	10,000
김옥지	30,000	이종규	100,000
김용철	2,500,000	이진경	50,000
나화균	30,000	이하범	200,000
눈초롱안과	1,000,000	이하범-명우회	2,000,000
담양우리안과	1,000,000	전경련	2,000,000
무명	60,000	최대호	4,000
바이오랜드	100,000	최병조	30,000
박인원	300,000	한길안과병원	3,000,000
합 계			18,368,790

후원안내



실명예방재단은 당신의 조그마한 정성으로 어려운 이웃의 백내장, 각막이식 등의 무료 개안수술과 의사가 없는 무의촌 지역의 안과 순회검진, 안보건기술의 개발 및 연구사업 등을 실천하는 곳입니다.

후원종류

- 일반회원 – 정기적으로 일정 금액 후원
- 결연회원 – 수술환자 간병 및 1:1 후원
- 특별회원 – 일시불로 원하는 사업에 후원
- 봉사회원 – 보호자 없는 환자 수술시 병원에서 자원봉사
- 모금함 설치

후원회원 혜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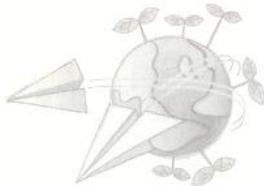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 제1항 제39호에 의한 공익성 기부금 대상 단체로 본 재단의 후원 및 기부금의 경우 면세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본 재단에서 발행하는 책자 우송 및 세미나 참가

후원금 납입방법

- 외환은행 : 124-13-04380-6
- 우리은행 : 165-131450-13-201
- 지로번호 : 5095874
- 예금주 : 한국실명예방재단
- 문의전화 : (02)718-1102, 718-1137 (후원 담당자)

자동이체를 하실 경우 통장, 도장, 신분증을 지참하여
후원자님의 거래은행에서 후원계좌간의 자동이체를 신청하시면 됩니다.

재단소식



정기이사회 개최

지난 2월 17일 제 21년차 2009년 정기이사회가 개최되었다. 이사회에서는 2008년 사업에 대한 보고와 2009년의 사업계획 등이 논의 되었다.



반장식 전 차관 이사 취임

지난 21년차 2009년 정기이사회에서 반장식(현 서강대 교수, 전 기획예산처 차관)이사가 신임이사로 선임되어 재단 사업의 발전에 큰 힘이 될 것으로 기대가 된다.



2009년 노인 안 검진 사업 시작

노인 안 검진사업이 3월 24일 전남 신안군을 시작으로 전국 60곳의 9,915명의 어르신을 대상으로 시·군·구에서 실시된다. 2008년에 10,654명에게 무료 안 검진과 2,962안의 개인수술지원을 하였다.

취학전 아동 시력검진 사업 시작

2000년부터 실시하고 있는 취학전 실명예방사업은 금년에도 새로운 자가시력검진도구 600,000부를 제작하여 현재 전국의 각 보건소와 서울시 교육청에 보내어 어린이집과 유치원 등으로 배포할 수 있도록 하였다.

스페셜올림픽 안과검진 지원

지난 2월 19일 4일 서울 마포구 용강동에 위치한 엠 웨딩홀에서 실시한 한국라이온스 50주년 기념 스페셜올림픽 오프닝아이즈에 본 재단도 참여하여 봉사활동을 펼쳤다. 본 재단은 '오프닝 아이즈 - 눈건강 돌보기' 프로그램에서 지

재단 소식



역의 독거노인과 지적발달장애인 229명을 대상으로 안 검진을 실시하고 안약과 돋보기를 제공하였다



사회복지공동모금회 LG디스플레이 지정기탁사업 실시

본재단은 LG디스플레이(사회복지공동모금회 지정기탁사업) 후원으로 2009년 '전국 눈건강 순회교육 및 저시력재활사업'을 펼쳐나가기로 하였다. 이동교육차량을 통해 초등학교 학생들과 어르신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눈건강 교육이 진행될 예정이며, 캠페인을 비롯, 저시력인들의 재활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도 함께 펼쳐나갈 예정이다.

조명 박물관 2009년 빛 공해 사진공모전 후원

매년 6월 5일 환경의 날을 기념하여 조명박물관에서 실시하는 '2009 빛 공해 사진공모전'에 재단에서 후원을 하게 되었다. 빛과 시력에 대한 문제를 생각해볼 수 있는 빛 공해 사진공모전이 되기를 바란다.

신경환 회장 정년퇴임식

지난 2월 14일 가천의과대학교 인천 길병원 신경환 교수(본재단 회장)가 정년퇴임식을 가졌다. 그 동안 가천의과대학 인천 길병원에서 많은 후배 양성에 힘을 쓰시고 안 보건계의 큰 업적을 남기고 퇴임하였다.